

[학생 기자단 기획 특집 - 전문가 진로 멘토링]

## 젊고 유능한 한인 치과 의사들의 가장 현실적인 멘토링! 형제 치과의사 황용광, 황동광 박사 인터뷰



6월 13일 트로이 패밀리 치과에서 진행한 황용광, 황동광 박사들과 그룹 인터뷰

[트로이=미시간오늘]미시간오늘 학생 기자단은 진로 멘토링을 위한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난 13일 트로이 패밀리 치과(Troy Family Dentistry)를 방문했다. 동 치과는 3년 전 황용광 박사가 개원했다. 그동안 트로이 로체스터 지역에 한인 치과 의사가 없어 불편을 겪었던 한인들에게 희소식을 준 곳이기도 하다.

이번 전문가 인터뷰는 황용광 박사와 동생 황동광 박사가 프리젠테이션 형식으로 준비해 주었다. 두 의사는 미시간대(U of M, University of Michigan)를 졸업하고 치과의료 활동 중이다. 하지만 각자 학습 유형과 공부 스타일이 다르고, 또 현장 경험들도 달라 다양하고도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트로이 패밀리 치과는 개원 당시 대부분의 환자가 백인이었으나, 한인 커뮤니티에 입소문이 나면서 현재 한인 환자의 비율이 50%가 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황동광 박사는 디트로이트 멀시 치대에서 신경치료 전문의 과정을 마치고 곧 애틀란타로 이주해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이다.

### Q1.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

(황용광) 어릴 적부터 치아가 많이 겹쳐 있는 '크라운팅' 문제로 교정을 해서 자연스럽게 치과 분야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사실 대학에 진학했을 당시 의대에도 관심이 있어 의대와 치대 두 개의 선택지를 모두 열어 두고 생리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치과 웨딩(shadowing) 경험을 통해 저의 성장과 잘 맞는다는 확신이 들었고, 부모님의 뜻을 고려해서 치과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황동광) 제가 치과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형의 영향이 컸던 거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형을 따라 병원 자원봉사를 하며 의료 분야에 호기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형과 룸메이트로 지내면서 웨딩도 같이 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치과 의사가 되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 Q2. 미시간 치대에서 공부하는 것은 어땠나요?

(황용광) 고등학교 이후 미국에 와서 영어에 익숙지 않았고 언어 장벽 때문에 학업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치대생이 되면서 수업 난이도가 고등학교에 비해 갑자기 올라가고 양도 많아져 그에 적응하는 데에도 힘이 들었습니다. 특히 1~2학년 때는 도서관에서만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황동광) 일반 대학과 비교해 치대는 공부량이 많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점심 시간 한 시간 빼고 온종일 수업을 들어야 하는 스케줄이었고, 시험도 많았습니다. 공부만 해도 시간이 부족하곤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3~4학년 때는 직접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실습의 기회가 많아서 그때가 훨씬 수월했던 기억이 납니다.

### Q3. 치대를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황용광 박사님): 너무 뻘한 답변일 수도 있지만 성적관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GPA는 물론 치대 입학에 위한 시험인 DAT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 치과 웨딩과, 관련분야 리서치, 자원봉사 등의 활동도 해야 합니다. 또한 교수님, 치과 의사들의 추천서도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본적인 조건에 충족이 되면 자신의 업적과 관심사와 같은 퍼스널 스테이트먼트(Personal Statement)에 신경을 써야하는데 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나름의 필터링이 있어서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바로 알아보고 이것을 퍼스널 스테이트먼트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너무 뻘한 것은 피하고 나만의 경험으로 나다움을 드러내는 편이 좋습니다. 인터뷰는 왜 이 학교에 오고 싶은지, 왜 치과의사가 되고 싶은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질문들이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황동광) 기본적으로 GPA와 DAT의 점수가 좋아야 합니다. 엑스트라 커리큘러(Extra Curricula)를 잘 쌓아두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누가 어떤 내용으로 추천서를 써주는지 역시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사람일수록 좋겠지요. 미시간 대학교 치대 인터뷰의 경우 10분 동안 여러 명의 심사관들과 진행을 하는데, 눈을 잘 마주치며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이를 위해 사전에 연습해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 Q4. 치대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황용광) 치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모두 비슷한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학점 관리나 방과후 활동, 봉사활동 웨딩 등 모두 신경 써야 하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 유학을 왔으니까 언어 장벽 때문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똑똑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그들에 비해서는 저는 보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 들은 수업 내용도 다 암기할 정도의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 반면, 저는 열심히, 무한반복으로 공부해야 했습니다. 극복 방법은 그냥 노력하는 것 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의 팀을 드리자면,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이 잘 하는 것과 못하는 것,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성격, 감정 컨트롤 방법, 그리고 생활 패턴 등을 미리 깨닫고 그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공부 방법을 파악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힘들 때면 '나만 힘든 게 아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황동광) 치대는 경쟁률이 높아서 (미시간대는 2000명 지원자 중에서 단 109명 합격) 백업플랜(Back up Plan)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 같습니다. 저는 다행히 한 번에 들어가서 잘 풀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니 갭 이어(Gap year)에 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또, 공부량이 너무 많습니디. 벼락치기 보다는 미리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아 그에 맞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여럿이 함께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서 하는 것을 선호해서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 Q5. 고등학교 졸업 전에 '이건 꼭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추천 활동이나 본인이 경험해 본 활동 혹은 실수담은?

(황용광) 치대에 관심이 있는데 본인은 정자 치과를 안 다녀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관심이 있으면 환자로서의 경험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필요하죠. 또 웨딩을 요청할 때는 부모님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학생이 직접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학생이 직접 요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학생 본인이

진심을 가지고 직접 요청을 하는 사람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죠. 자신의 일에 적극적인 학생은 인생 목표가 확실한 경우가 많고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시켜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더라고요.

(황동광) 고등학교 때는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교수님들께 이메일을 써서 리서치 기회를 찾았습니다. 또한 병원 봉사도 했고요. 웨딩은 치대를 가기 위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현장의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만했던게, 떨어질 거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자 명단에 있다가 합격한 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붙기는 했지만 만일을 대비해 불합격 했을 때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죠.

### Q6. 전공 공부하면서 특별한 경험이나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황용광) 다양한 연령대와 배경의 사람들을 다양하게 알고 지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치과 의사가 되면 많은 소통하고 이해해야 하거든요.  
(황동광) U of M 치대의 'expose experiment'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한 것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 Q7. 치대에서 공부를 할 때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황용광) 미국의 교정, 신경치료, 잇몸치료와 같은 스페셜티(Specialty, 전공의)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도 많기 때문에

겠죠. 거기에서 더 나아가면, 소통 능력이 요구됩니다. 치과 의사는 직업도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 환자와의 좋은 관계도 유지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히 하는 것이 좋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공감 능력같은 것도 포함됩니다. 환자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친절함과 진정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친절과 진실 어린 마음은 언제나 통합니다.

(황동광) 공감 능력에 대해 더 얘기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과라는 곳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환자를 처음 만났을 때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환자에 따라 알맞는 치료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맞는 답은 없겠지만, 그 환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라면 어떻게 치료를 했을 지 생각하면서 치료방안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학계 발표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이 발표되면 이에 대해 파악하고, 컨퍼런스도 계속 참석해 배우고 발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Q10. 치과에도 응급환자가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주세요.

(황용광) 극심한 치통이나 사고로 치아가 손상된 환자들이 응급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들은 더욱 섬세한 응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황동광) 참기 힘든 통증이나 감염으로 얼굴이 심하게 붓는 경우가 응급 상황입니다. 치



두 치과의사와의 인터뷰는 차분하면서도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환자에게 적합한 의사를 추천해 각자 맡은 업무에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한 명의 의사가 많은 것들을 담당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황동광) 미국은 현장 경험에 대한 노출이 빠르고 양적으로도 많습니다. 또한 병원 관리·운영 역할까지도 배운다는 점이 한국과 다릅니다.

### Q8. 앞으로 치과 기술 발전에서 가장 기대하거나 주목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황용광) AI가 진단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3D 프린팅과 스캐닝 기술이 발달하여 현장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황동광) AI가 진단 보조 및 치료 계획 수립의 정확도를 높여줄 것이며, 모호한 회색 지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마다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도 공격적으로 치료해야 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위험 부담이 적은 보수적인 치료를 선택할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AI가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 안전하게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Q9. 좋은 치과의사가 갖춰야 할 중요한 자질은 무엇입니까?

(황용광) 첫 번째로, 실력이나 섬세함이 필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환자들에게 믿음직스러운 의료진이 될 수 있

통으로 인한 부종은 기도가 막힐 수 있 때문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앞니가 깨지거나,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수입니다.

### Q11. 공부하거나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황용광) 환자의 통증을 줄여주고 환자를 치료한 뒤 자신감 있는 미소를 찾았다는 피드백을 받았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미용적 개선, 해결 등 좋은 방향으로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면 뿌듯합니다.  
(황동광) 통증 치료를 통해 고통을 해결하고 환자로부터 감사하던 이야기를 들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 Q12. 스트레스 해소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으신가요?

(황용광) 저는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친구나 선배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합니다. 주말엔 충분히 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황동광) 치과 의사는 섬세한 직업이자 스트레스가 큰 직업이라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병원 밖에 나가면 치과 관련 생각은 안 하고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제 스트레스 해소 방법입니다.

### Q13. 치과 의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황용광) 1학년때부터 학점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적이 좋을수록 선택지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공부 스타일을 알고 그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고, 왜 이 길을 가려 하는지 자신과 계속 대화하는 것들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동광) 남이 시켜서 하는 것과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최종 목표를 정했다면 그에 대한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세우고 좀 더 나아가 하루 계획을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향해 가기 까지 상세하게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세요. 커리어를 쌓는데 있어서 사소한 게 중요합니다. 좋은 습관을 기르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황용광 박사 개인 질문>

### Q1. 생리학 전공이 치대 공부나 진료에 어떻게 도움이 됐나요?

첫 진로 선택에 신중함을 기할 때 생리학(Physiology)을 전공했습니다. 의대와 치대에 대한 진로 모두를 열어 둔 채로 공부를 했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학생기자단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황용광, 황동광 박사

습니다. 과학 관련 분야에 대한 노출 또한 많이 했습니다. 이는 기초 지식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됐고, 이는 실제 진료와 전공 공부 모두에서 유리한 작용을 했습니다.

Q2. 아버님께 직접 임플란트를 해드린 경험이 있으신데, 어떠셨나요?

가족을 치료하는 것은 아주 뿌듯합니다. 부모님 역시 자랑스러워 하셔서 좋았습니다.

Q3. 한국인 환자와 외국인 환자 사이에서 기억에 남는 차이점이나 상황이 있었나요?

제가 트로이에 오기 전까지는 거의 다 외국인 환자를 위주로 진료를 했었어요. 다양한 인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인종별로 해부학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양인들은 입이 등이 다른 인종에 비해 작기 때문에 치료할 때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해요. 입이 어긋나나 사랑니쪽이 드러나도록 벌어지지 않아 힘든 점도 있습니다. 대신 치아가 작고 뿌리가 깊지 않아 받치는 더 쉽습니다. 이에 비해 흑인 환자분들은 뿌리가 깊어 힘든 점이 있습니다. 언어에 있어서는, 한국어는 표현이 풍부하고 어휘도 다양해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할 때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영어를 쓸 때는 조금 단순화 되는 것 같아요. 표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Q3. 치과 의사라는 직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학생 때는 환자 한 명에 대한 진료가 3시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명 넘는 환자를 진료해야 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배우지만, 실제 진료에선 스스로 매 순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합니다. 훨씬 더 빠른 페이스로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또한 치과 의사는 나름의 직업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리와 목, 어깨 등의 몸을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Q4. 환자를 대하는 특별한 노하우나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보통 치료 전후 과정을 사진으로 많이 기록해두고 이를 환자께 보여주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환자가 치료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늘 친절하고자 노력합니다.

<황동광 박사 개인 질문>

Q1. 치대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을 더 공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대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슈퍼 제너럴 덴티스트(Super General Dentist)가 되어 치과 관련 모든 업무를 해내는 의사가 되겠다는 포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신경치료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 전공의를 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전문 분야에 집중하면 더 깊이 있는 진료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저에게 맞는 선택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Q2. 신경치료 전문의를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너럴 덴티스트와 전문의의 차이를 식당 경영에 비유를 하자면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는 뷔페나 한 가지 메뉴에 집중하는 돈가스 전문점이나 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분야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어서 신경치료 전문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경치료는 집중력과 섬세함이 요구되지만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신경치료가 가장 재미있습니다. 신경치료는 체스처럼 상황에 따라 변수가 많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퍼즐 끼워 맞추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완성된 작품을 봤을 때 뿌듯한 기분도 들고, 환자분들도 좋아해주니 직업 만족도도 높아지더라고요. 제 성향에 맞는 것 같아서 신경치료 전문의를 선택했습니다. 또한, 신경치료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력이 나날이 향상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학생 기자단이 특집으로 다루고 있는 진료 멘토링은 주로 zoom팅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다. 그런데 이번 인터뷰는 첫 현장 방문 인터뷰임에도 불구하고 박사님



들께서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유의미한 자리가 되었고, 유용하고도 상세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 특히 치열하게 공부하셨던 생생한 경험담 등은 긍정적인 자극과 학습에 관한 동기부여가 되어 더욱 좋았다.

인터뷰 내내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아 정체성이 뚜렷해야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욕망하는 지를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때 행복한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치대를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성적도

중요하고 경험들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꿈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다. 거기에서 동기가 부여되고 이것이 힘든 과정의 길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발휘하도록 해준다. 치대 관련 진로를 생각 중인 학생들은 이번 기사를 통해 치과의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 특히 단순한 치료 뿐만 아니라 환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마음을 교감하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이를 통해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학생기자단 김하준 박채린 이연서 하준형]

## 2025년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2025 장학생 선발공고

### 목적 | PURPOSE

한미 장로교 장학재단의 목적에 준하며, 재미 한인 교회와 재미 한인 공동체를 위해 강렬한 사명 의식을 가지고 열성으로 봉사하려는 인재 발굴과 양성. The objective of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is to discover and to cultivate the future leaderships of the Korean-American churches & community.

### 신청자격 | ELIGIBILITY

미주지역에 있는 한인장로교회에 소속한 학생으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구비하신분 (본 장학금을 이미 받으신 분은 제외됨). The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tudents who meet the following qualifications.

-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고 신앙생활이 독실하며 교회와 사회에 모범이 되는 분으로 교회와 사회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려는 학생에 한함. Who upholds the sound faith in Jesus Christ practices the sincere Christian life sets an example in their local churches and community commits to serve church and community with a strong conviction of calling.
- 현재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에 한함. Who has been enrolled in an accredited college,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Master's level) in the current academic year.
- 신학계통의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은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신학교에서 M. Div.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에 한함. For theological students and the M-Div. course at the PCUSA theological seminary.
-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학생에 한함. Who is a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 제출서류 | APPLICATION

특별한 신청 양식은 없으나 다음 1~5번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Application: No official form, but the following documents must be accompanied:

- 명함판 사진이 첨부된 본인 이력서 (연락 가능한 주소와 전화번호 필수) A resume with a photo attached (current address and phone number included).
- 신앙고백적 사명감과 장래 비전에 관한 진술서 (한글 또는 영문 2페이지) A personal statement of faith, conviction of calling, vocational vision (Either Korean or English in 2 pages).
- 본인 또는 부모님의 2024년 연방 소득세 1040, 1040A, 또는 1040 EZ사본 Applicant's or parent's copy of 2024 Federal Income Tax 1040, 1040A or 1040EZ.
- 추천서 2통
  - 소속 또는 출석하는 장로교회 담임목사님 추천서 A Presbyterian pastor's letter of recommendation with which one has been affiliated.
  - 현재 재학중인 대학 또는 대학원의 교수 추천서 1통 A recommendation from an official academic institution professor.
- 본인 재학 중인 학업 성적표 Official transcripts of current academic year mailed directly from the institution to the office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본회 사무실에 직접 우송해야 합니다.

### 신청마감 | DEADLINE

신청서 접수 및 우편 소인 마감: 2025년 7월 25일 (접수서류 반환하지 않음) July 25th, 2025 Date of stamp (All submitted documents not be returned).

### 장학금 내역 | A LIST OF SCHOLARSHIP

1	김득철 목사, 김복선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2	김득철 목사 가족 특별 장학생 1명	\$2,000.00
3	주영옥 목사, 손철수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4	주요남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2,000.00
5	김혜란 권사 장학생 1명	\$2,000.00
6	이민근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7	왕수복 장로 장학생 1명	\$1,000.00
8	홍길동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9	김광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10	신봉성 권사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11	이범열 장로 기념 장학생 1명	\$1,000.00
12	New Life Lansing K.P.C. 장학생 1명	\$1,000.00
13	여광자 목사 장학생 1명	\$1,000.00
14	미래 장학생 1명	\$1,000.00

### 신청서 접수 | MAILING ADDRESS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1142 Canterbury Cir. Canton, MI 48187  
E-mail: kapsf2020@gmail.com, 문의: 734-693-1888

### 장학금 수여 | THE DATE OF SCHOLARSHIP AWARD

2025년 8월 31일 - 선발된 장학생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직접 발송함. (장학금 수령자는 장학금 기증자에게 반드시 감사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August 31st, 2025 by mail (Please return your feedback letter with a thanksgiving expression)

###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SCHOLARSHIP FUND

회장: 김중대 장로 | 총무: 안덕치 목사 \*본 장학회에 관한 기타 정보는 크리스천저널 웹사이트 [kcjlogos.org](http://kcjlogos.org)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아트랩제이 트로이 댄스 & 아트 스튜디오

# ArtLab J

165 Kirts Blvd #400  
Troy MI 48084  
(건물 뒤 주차장 이용)

ArtLabJ.com    education@artlabj.com    313-638-2192

미시간 최초 창의융합 프로그램. 무용, 미술, 음악을 접목한 프로그램  
무용: 발레, 현대무용, 케이팝댄스, 키크기운동, 아크로바틱, 스트레칭  
미술: 기초 미술, 창의 미술  
음악: 첼로, 비올라, 피아노, 드럼, 기타, 전자음악작곡

## 3개월-18세, 성인 프로그램(한국무용 추가예정)

지금  
등록하세요!

### BALLET

우아한 발레동작으로 전신 근육을 단련하며 칼로리를 소모하고, 유연성과 균형감을 키우세요.

### POWER PLATE

짧은 시간에 최대의 효과! 단 15~30분으로 지방을 태우고, 전신을 탄탄하게 가꾸세요.

### K-POP

즐겁게 땀 흘리며 칼로리를 태우세요. 하루에 에너지를 충전하며 몸매관리까지!